

憲法改悪反対労組声明

헌법 개악 반대 노조 성명

反对修改日本国宪法 日本工会声明

Statement of Labor Unions Against Constitutional Revision

(2014年4月26日発行)

この憲法改悪労組声明は、2013年11月3日の11・3全国労働者総決起集会において全日建連帯労組関西生コン支部と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の3労働組合の呼びかけから始まった憲法改悪に反対する労働組合の声明です。

安倍政権は、集団的自衛権の容認など前のめりの姿勢で改憲と戦争へと突き進んでいます。改憲と戦争に反対する労働組合の社会的影響力を行使する時です。さらに多くの労働組合が声明に加わることを訴えます。

憲法改悪反対労組声明

戦後60数年にわたって阻んできた改憲と戦争への衝動が安倍政権の手によって解き放たれようとしている。内閣法制局長官をすげ替えて憲法解釈がクーデター的に変更されようとしている。集団的自衛権を容認し、武器輸出三原則を見直して世界中に自衛隊を派兵し、武器を輸出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のだ。特定秘密保護法を制定し、公務員やマスコミを「懲役10年」の恐怖で沈黙せさせようというのだ。「新たな戦前」が始まろうとしている。かつて歩んでしまったアジア諸国への侵略戦争と敗戦。その深い反省のなかで制定されたはずの憲法はふみにじられ、新たな戦争への歯止めが外れようとしている。

自民党が発表した改憲草案は、戦争放棄を定めた9条を「戦争条項」に180度変貌させてしまっている。「国防軍を保持する」「自衛権の発動は妨げない」「国は、領土、領海及び領空を保全し、その資源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だ。「政府の行為によ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基本的人権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って、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とうたわれた前文や97条は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に書き替えられ、「天皇は元首」と明記されている。「秩序を害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結社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と、結社・言論・表現の自由、基本的人権、労働基本権が根本的に否定され、すべての権利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国家緊急事態権」も盛り込まれている。

戦争が至るところで増殖している。沖縄では日米安保体制と米軍基地の再編強化が進んでいる。国家主義や排外主義、領土問題が洪水のように煽られ、憎悪と恐怖が時代の精神になろうとしている。

戦後政治を支配した自民党の一貫した立場は、「自主憲法」を制定し、再び独自の軍事大国として登場したいということであった。だから、「憲法改悪反対」は日本の労働運動にとって全ての闘いの土台をなす最も重要な課題であった。

しかし、総評・社会党の解散と労働運動のとめどない後退が事態を一変させた。「戦争反対」の原点は忘れ去られ、労働運動の中からも改憲を容認する部分が生まれてきたのだ。われわれは歴史から学んできたはずであった。しかし、支配の危機につき動かされ、国益と結びついた戦争への衝動が現実化したとたんに、それまでは戦争に反対してきた者が挙国一致と戦争の支持者に転落していった歴史が再び繰り返されようとしている。

始まりは国鉄分割・民営化だった。中曽根元首相は、その狙いを「国労をつぶし、総評・社会党をつぶすことを明確に意識してやった」「行革でお座敷をきれいにして、立派な憲法を床の間に安置することが目的だった」と語っている。今こそその流れを断ち切り、労働者の団結した力をと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

外への戦争の野望は内に向けた労働者への戦争とひとつのものだ。政治反動と表裏一体で貧困と格差が蔓延し、雇用、社会保障制度、教育、医療等、生きる権利そのものへの激しい破壊攻撃が加えられている。

福島では、これまで人類が経験したことのない大規模な放射能汚染が拡大し、打つ手すらない危機が進行しているというのに、この国の政府は、原発マフィアの利益のために、「全てはコントロールされており安全」という虚言で真実を覆い隠し、200万県民を見殺しにしようとしている。

われわれは歴史の大きな分岐点に立っている。憲法改悪を許してはいけない。戦争への道を阻止しなければいけない。戦争反対の闘いが、労働運動の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る。それは平和を求める労働者の特別の任務だ。その闘いはどんな困難を伴おうとやりとげなければいけない課題だ。なぜなら、労働者の団結した闘いこそが歴史を動かし、社会を変革する力だからだ。労働者の闘いこそが戦争を止める力だ。

生きることそのものを奪われた怒りの声が積みあがっている。時代への危機感が満ち溢れようとしている。われわれは、アジアー世界の民衆と連帯し、力を合わせて憲法改悪反対の闘いに立ち上がる。平和のための特別の任務として戦争につながる全てに反対する。その声を広げるために全力で努力する。未来への希望を自らの手で築きあげるために二度と過ちは繰り返さない。

이 '헌법 개약 노조 성명'은 2013년 11월 3일 11.3 노동자총궐기집회에서 전일건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와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합동 그리고 국철치바동력차 노동조합 등의 제안으로 시작된 헌법 개약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성명입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 용인 등의 조금한 자세로 헌법 개약과 전쟁의 길을 돌진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약과 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더 많은 노조조합들이 성명 제안에 참가 하시길 바랍니다.

헌법 개약 반대 노조 성명

2 차대전 이후 60 년 동안 우리가 막아내 온 헌법 개약과 전쟁을 향한 총동이 아베 정권의 손으로 풀리려고 하고 있다. 내각 법제국 장관을 바꾸고 헌법 해석을 쿠데타 처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무기수출 3 원칙을 재검토하고 전 세계에 자위대를 파병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며 공무원이나 언론인을 '징역 10 년'이라는 협박으로 침묵시키려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 전야'가 시작되고 있다. 과거 자행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패전.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제정된 헌법을 짓밟고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역제가 풀리려고 하고 있다.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초안은 전쟁 포기를 정한 제9조를 '전쟁조항'으로 완전히 변모시켜 버렸다. "국방군을 보유한다," 자위권 발동을 막지 않겠다," 국가는 영토, 영해 및 영공을 보전하며 그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 참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하는 것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에 대한 노력의 성과이자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 신탁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헌법 전문과 97 조는 편협한 나셔나리즘으로 바뀌고, "천황은 원수 (元首)"라고 명기되어 있다. "질서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결사, 언론, 표현의 자유, 기본적 인권,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 당하고 모든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국가긴급사태권'도 담았다.

전쟁이 도처에서 증식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일미안보체제와 미군기지 재편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주의나 배외주의, 영토 문제가 흥수 처럼 선동되며 증오와 공포가 시대 정신이 되려하고 있다.

2 차 대전 이후 정치를 지배해 온 자민당의 일관된 입장은 '자체 헌법'을 제정하고 다시 군사 대국으로 등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헌법개약 반대'는 일본 노동운동에 있어 모든 투쟁의 토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총평 및 사회당 해산과 노동운동의 끊임없는 후퇴가 사태를 일변시켰다. '전쟁반대'라는 원점은 잊어 버렸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개헌을 옹납하는 부분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 왔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배의 위기가 심화되며 국익과 연결된 전쟁 총동이 현실화 하자마자 그 때까지 전쟁을 반대해 온 사람들이 거국일치와 전쟁 지지자로 전략해 간 그 역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시발점은 국철 분할민영화였다. 나카소네 전 수상은 그가 의도한 목적을 놓고 "국철노조를 깨고 총평과 사회당을 깨는 것을 명확히 의식하며 행한 것이다," "행정개혁으로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훌륭한 헌법을 안치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야 그 흐름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되찾아야한다.

국외에 대한 전쟁 야욕은 국내로 향한 노동자에 대한 전쟁과 하나의 것이다. 정치 반동과 포리일체로 빈곤과 격차가 만연하며 고용, 사회보장제도, 교육, 의료 등 생존을 위한 권리 그 자체에 대한 심한 파괴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 못했던 대규모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면서 해결책조차 없는 위기가 진행중인데도 이 나라의 정부는 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있으니 안전하다"란 허언으로 진실을 가리며 200 만 현민을 내버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헌법 개약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전쟁을 위한 길을 막아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노동운동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평화를 바라는 노동자의 특별한 임무다. 그 투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야 되는 과제다. 왜냐면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며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투쟁이야말로 전쟁을 막아낼 힘이다.

살아 가는 길 그 자체를 빼앗긴 분노의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 시대의 위기감이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아시아를 비롯한 온 세계의 민중과 연대하면서 힘을 합치고 헌법개약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평화를 위한 특별한 임무로서 전쟁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를 확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려 노력한다. 미래의 희망을 스스로의 손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

2013年11月3日,全日本建设运输连带劳动组合关西地区搅拌混凝土支部(建设运输工人的工会),全国金属机械劳动组合港合同(中小金属机械公司工人的联合工会)和国铁千叶动力车劳动组合(铁道司机工人的工会)举行了全国劳工总奋起集会。

以下是这三工会呼吁反对修改日本国宪法的声明。安倍政权通过表态承认“集团自卫权”等,加紧推进修改宪法和走向战争。现在是时候工会通过其社会影响力来反对修改宪法和战争了。我们希望更加多的工会赞同这声明并加入这一反对运动。

反对修改日本国宪法 日本工会声明

安倍政权为顺利发动战争,正加紧修改日本国宪法中关于日本永久放弃战争之条款。这是第二次世界大战后至今的六十年间,日本劳工和大部分日本国民一直在试图阻止的,但安倍政权却欲强行打破这种现状。安倍政权换下了内阁法制局长,以类似于发动政变的方式,企图改变宪法的解释;承认集团自卫权、修改武器输出三原则,企图向世界各地派遣自卫部队、输出武器;制定特别秘密保护法,企图用“10年刑期”的恐怖来封住公务员和媒体的嘴。安倍政权正在开展“新的战前准备”。它无视基于对亚洲各国的侵略战争和二战惨败的反省而制定成文的宪法,并欲打破现行宪法的限制,发动一场新的战争。

自民党发表的修宪草案对现行宪法来了一个彻底颠覆,将放弃战争的第9条完全修改成了“战争条款”。

以下是现在日本国宪法第9条原文。

【第二章第九条规定 (放弃战争,否认军备及交战权)】:

1. 日本国民衷心谋求基于正义与秩序的国际和平,永远放弃以国权发动的战争、武力威胁或武力行使作为解决国际争端的手段。
2. 为达到前项目的,不保持陆海空军及其他战争力量。不承认国家的交战权。

但是,自民党提出的修宪草案中却写明;

“应该拥有国防军”

“第九条第1项并不意味着放弃自卫权”

“国家必须保卫领土、领海、领空,确保国家资源的安全”

现行的日本国宪法中关于放弃战争、致力于人权保护的条款还有以下几条;

【日本国宪法前文】

为防止因政府行为而再次发生战祸,兹宣布主权属于国民,并制定本宪法。

【第九十七条 (基本人权的本质)】

国民的基本人权受日本国宪法保障。这是人类为争取自由长期斗争而得到的成果。经时间检验,基本人权现已被广泛接受为现今以及将来之国民的不可侵犯的永久权利。

但是,在自民党宪法草案里,这些条款都被改写为狭隘的国家民族主义,并添加了“天皇是元首”的内容。

另外,自民党修宪草案中加入了日本国首相有宣布“国家紧急状态”权力的规定,写明“国家紧急状态”期间宪法中所规定的国民基本权利将被全部禁止,如“所有以妨碍公共秩序为目的的结社不予承认”。这实际上否定了国民拥有结社、言论、表达自由等基本人权和工人有的3个基本权利(团结权,罢工权,集体交涉权)。

战争气氛正在蔓延。在冲绳，日美安保体制和美军基地的编制重整正在进行中。安倍政权煽动国家主义和民族排外主义，并挑起领土纠纷。憎恨和恐怖成了这个时代的主旋律。

支配日本战后政治的自民党的一贯立场是制定“自主宪法”，以使日本再次作为独立的军事大国重登国际舞台。所以，反对修宪的斗争一直是日本工会所有斗争的基础和重点课题（这个“工会”不是大陆的“总工会”。它是真正意义上的工会，是“工人自主建立的工人组织”）。

但是，总评（日本工会总评议会）·社会党的解散和工人运动无止境的衰退改变了事态：反战思维的出发点被抛弃、被忘却；劳动运动中甚至出现了容忍修宪的倾向。难道我们还没有从战败的历史中吸取到教训吗？在今天，我们又必须面临着历史悲剧再次重演的危险。就像日本历史上曾上演过的那样，一旦统治阶级以保卫国家利益而发起的战争真正爆发的话，本来反对战争的人们会突然转为团结一致地支持并参与到战争中。

这样的日本工会衰退是从国铁的分割·民营化（1987年）开始的。中曾根元首相曾表明过，国铁分割·民营化的目的就是为“打垮国铁劳动组合（国铁工会），解散总评·社会党”，为了“利用行政改革来做文章，将日本工会运动一扫而光，并制定永载史册的自主宪法”。所以，我们必须要打碎他们的妄想，与所有工人团结起来形成一股强大的力量。

实行对外战争实际上是对国内劳工们发动战争。因为反动政治带来的直接影响是，贫富差距变大，贫困现象蔓延，就业、社会保障、教育、医疗等居民权利都将会受到巨大的冲击。

在福岛，面对人类史上前所未有的大规模核污染灾难的侵害范围仍在扩大这一严重危机，日本政府只考虑核发电既得利益者的利益，竟然弃200万福岛县民的生死于不顾，说出“形势已得到完全的控制，一切都安全”的谎言。

我们处在一个历史分歧点上。我们绝不允许修宪。必须阻断战争的步伐。反战已成为劳动运动的重要课题。这是爱好和平的工人人们的特殊任务。不管面对多么巨大的困难，我们都必须坚持完成这个任务。因为只有工人团结起来共同斗争，才能改变历史、推动社会变革。工人人们的奋斗才是阻止战争的真正力量。

生存权被剥夺，这引起了所有工人的愤怒。社会上到处能听到工人们对于这一现象发出的批判和反对之声。我们要联合全世界劳工，特别是亚洲的劳工们，一起参与到反对修宪的斗争中来。反对任何与发动战争有关的政策措施是所有爱好和平的人们义不容辞的责任。我们将致力于加强和扩大反战呼吁的影响力。我们要用我们自己的手构筑起充满希望的未来，绝不再让战争悲剧重演。

On November 3, 2013, three labor unions—Kan-Nama (Solidarity Union of Japan Construction and Transport Workers Kansai Area Branch), Minato-Godo (Metal and machinery Workers' Union in Osaka) and Doro-Chiba (National Railway Motive Power Union of Chiba)—issued the statement below at their National Workers Rally and many unions and labor organizations endorsed it thereafter.

We are faced with increasing thrust toward constitutional revision and war, including the Abe administration's advocacy of collective self-defense. It is time for labor unions to use muscle to move our society. We sincerely urge that much more unions endorse the statement.

Statement of Labor Unions Against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be Administration is rushing to revise the Constitution of Japan to clear the way for waging wars. It is a blatant attempt to crush the efforts of workers and people who have blocked this attempt for six decad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recent replacement of the Chief of Cabinet Legislation Bureau was a coup d'état to facilitate a fundamental change i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serve Abe's purpose. Allowing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nd revising the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 the government is aiming to deploy the Self-Defense Forces all around the world and to promote weapon export, lifting the ban on it.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Secret Act in December last year was meant to intimidate and silence public service workers and the media by "ten-year imprisonment" for critical move.

We are faced with the beginning of a "new prewar period". They trample down the Constitution, which has long been esteemed as a product of profound remorse for Japan's aggressive wars on Asian countries and Japan's defeat in WWII. They are hurrying to open up the floodgates for a new war.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s draft constitution turns the current war renunciation provision, stipulated in Article 9, into diametrically opposite clauses.

Chapter II , Renunciation of war:

Article 9.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The planed revision by the LDP:

"National Defense Forces shall be maintained."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renouncement of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shall not preclud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The government shall protect Japanese territory and resources."

The current provisions on renunciation of war and on human rights are as follow: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Never again shall we be visited with the horrors of war through the action of government, do proclaim that sovereign power resides with the people and do firmly establish this Constitution"

Article 97: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by this Constitution guaranteed to the people of Japan are fruits of the age-old struggle of man to be free; they have survived the many exacting tests for durability and are conferred upon this and future generations in trust, to be held for all time inviolate."

These provisions are changed into bigotry and nationalism. The draft stipulates, "the Emperor shall be the head of the stat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s well as speech, pres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basically denied: "Activities intended to harm the public good or public order and associations for such purposes will not be permitted." On top of it, the LDP draft constitution empowers the prime minister to declare "an emergency," suspension of all the constitutional rights at once.

War drive is rampant all over the world. In Okinawa,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proceeding with the realignments of the Japan-US Security System and US bases are reinforced. The Abe administration inflames nationalism and chauvinism among people and ignites territorial disputes. Now hatred and horror seem to be becoming the “Zeitgeist”.

The consistent stanc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that has long dominated postwar politics is that Japan should establish Independent Constitution in order to emerge as a major military power once again. That is why the struggle to oppos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as been the cornerstone of all struggles for Japanese labor movement.

But the endless setback of labor movement caused by the disbandment of Sohyo (General Council of Trade Unions of Japan) and the Socialist Party of Japan (SPJ) at the end of 1980's drastically changed the situation. The original intention of anti-war has gradually been abandoned and forgotten. And what is more, even a tendency that accepts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as emerged from within the labor movement. Haven't we learned much from the history? Today, however, we face with the danger of repeating the same historical mistake. As our past history illustrates, those who have been opposing to war suddenly switch over to war advocates and agree to cooperate on national unity when desperate war drive of the ruling class turns into a reality in the name of defense of national interest.

The Division and Privatization of National Railways in 1987 marked a beginning of the degradation of Japanese labor movement. The then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later revealed the purpose of his political determination on this project: “I carried it out clearly intending to ruin Kokuro (National Railway Workers' Union) and then to crush Sohyo and SPJ.” “My purpose was to sweep all labor movements out of our country and establish an admirable Japanese Constitution.”

To put an end to this bitter history, it is high time now to stem the tide of undermining labor unions. We must regain workers' united power.

War of aggression abroad and class war at home against workers are one and the same. Pervasive poverty and widening disparity produced in our society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current political backlash. We are brutally attacked on our rights to live such as employment, social security system,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 on.

In Fukushima, unprecedented amount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has been spread widely. In face of the ongoing serious nuclear crisi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tells the world, “everything is under control and it is safe”, for the benefit of the nuclear industry mafia. Nothing is farther from the truth. The government has an intention to ignore and desert 2 million people of Fukushima Prefecture.

We are standing on a great historic turning point. We must stop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e must prevent the way to war.

Anti-war struggle has become the crucial task of labor movement. It is the essential duty for the workers seeking for peace. It is also the duty which must be accomplished no matter what difficulties exist.

Because united workers' struggle is the only power to move the history forward, and change the whole society. Our struggle is the only power to prevent war.

Angry voices of workers who are deprived of their very existence have been building up. The whole society is filled with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workers toward the situation today.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workers of the world, especially with the Asian people, we launch a decisive struggle against the offensive of constitutional revision by the Japanese ruling class.

We oppose everything related to war as the essential duty to establish peace. We should make the greatest effort to strengthen and widen the voice of opposition. We, Japanese working people declare here to go ahead to create our hopeful future by our own hand and pledge never to repeat aggressive war anywhere.

賛同労組（2014年4月26日現在）

- | | |
|------------------------------|-------------------------------|
| あいコープ労働組合 | 湘北合同労働組合 |
| 愛知労組交流センター | スタンダード・ヴァキューム石油自主労働組合 |
| 一陽会労働組合 | 精神医学研究所労働組合 |
| 一般合同労組北陸ユニオン | 全金本山労働組合 |
| 一般合同労働組合東京西部ユニオン鈴木コンクリート工業分会 | 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 |
| 茨城県地域連帯労働組合 | 全国社会保険協会連合会労働組合 |
| 茨城県西地区合同労働組合 |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 |
| いわき合同ユニオン | 地域合同労組・千曲ユニオン |
| 愛媛県公営企業病院労働組合 | ちば合同労働組合 |
| 愛媛県職員労働組合 | 常南交通労働組合 |
| 大阪北部ユニオン | 東海合同労働組合 |
| 岡山マスカットユニオン | 東京清掃労働組合光が丘工場支部 |
| 沖縄バヤリース労働組合 | 東京東部地域合同労働組合東部ユニオン |
| 化学一般昭和高分子労働組合 | 東京都高等学校教職員組合光丘分会 |
| 関西合同労組泉州支部 | 東京二十三区清掃一部事務組合労働組合足立支部 |
| 関西合同労組阪神支部 | 東京北部ユニオン |
| 関西合同労働組合 | 徳島医療福祉労働組合 |
| 関西合同労働組合奈良支部 | 奈良市公立学校教職員組合 |
| 関西合同労組南大阪支部 | なんぶユニオン |
| 群馬合同労働組合 | 広島県教職員組合呉支区阿賀小学校分会 |
| 合同一般労働組合全国協議会小竹運輸グループ労働組合 | 広島県教職員組合横路小学校分会 |
| 合同一般労働組合ユニオンしずおか | 広島県高等学校教職員組合呉工定時制分会 |
| 合同労組レイバーユニオン福岡 | 広島連帯ユニオン |
| 高陽第一診療所労働組合 | 広島連帯ユニオン草津病院支部 |
| 国鉄高崎動力車連帯労働組合 | 広大生協労働組合 |
| 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 | ふくしま合同労働組合 |
| 国鉄動力車労働組合総連合 | 北陸労働組合交流センター |
| 国鉄西日本動力車労働組合 | みやぎ連帯ユニオン |
| 国鉄水戸動力車労働組合 | 八尾北医療センター労働組合 |
| 国労新潟駅連合分会 | 山梨合同労働組合 |
| 自立労働組合京都（ユニオン自立） | J E C 連合関東化学一般労働組合ニッショー・ニプロ支部 |